

進化하는 建築對象과 建築家の 職能

李 光 魯

本稿는 韓國建築家協會 78年度 建築討論 基調論文 임을 밝힌다.

[1] 進化하는 建築對象과 建築家

1960年代 中半 以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建築은 世界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즉 眞實로 使用者를 만족시켜주는 새로운 建物は 거의 없고 建築家라는 職業이 기여하기로 되어있는 社會와 의 사이에 그 어떠한 形態를 가져야 하는가에 對하여 建築家와 大衆들 사이에 또한 建築家들 사이에도 상호간에 懷疑를 품게하고 있는 實情이다.

오늘날 建築家가 어떤 特別한 顧客을 위하여서 始終一貫 獨自인 自己表現에만 도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社會적으로 無責任하다는 批判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建築規模의 大型化와 組立式建築에 依한 工場生産을 통한 建築材料의 規格化 등은 어디까지나 獨自인 즐거움을 表現하려는 建築家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要因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건축가는 한 個人이 아니라 숙명 或은 그 以上의 人員이 集團이 되어서 設計를 하고 있는 形便으로 個個人의 建築가로서의 自己表現의 機會는 어느 정도 制約을 받는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Team의 構成에 의한 集團設計의 形態에서는 건축가는 經營技術에 대한 지식이 必要하게 되며 거기에는 作業의 效率性, 生産性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解答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建築物에 있어서 불편하다-너무 좁다든가 使用者의 要求에 맞지 않는다는 등-는 것이고 建物の 使用者를 진심으로 기쁘게 해 주는 건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건축물의 가장 重要하고 명확한 目標은 使用者의 活動을 收容하고 이러한 活動을 便利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安定感을 주는 房이나 空間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겠으며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堅固하지 못하다든가 등의 不安感이 없고 적당한 建築費와 施工期間이 들어서 使用者로 하여금 불안함과 不快함이 없도록 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Henry Wotten경이 말한 「좋은 건물이란 日用性, 堅固性, 時間, 價格 등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란 어떠한 視覺的인 기쁨에 많은 比重을 두는

建築論과는 그 觀點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물이 外觀上 훌륭하고 一般적으로 流行的인 表現을 간직하고 視覺的인 처리에서 잘 해결이 되었다면, 同時에 지붕이 샌다든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든가 너무 비싸게 들었다든가하는 문제들이 無視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건축가들이 경계하여야 할 것은 건축의 實用性을 追求하는 나머지 그 外觀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人間은 建물을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식하는데 그들은 建물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건축물도 그것의 獨特한 「멋」이 있으며 이것이 視覺的인 기쁨을 주는 重要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視覺的인 기쁨을 感覺通路를 거쳐서 認識으로 通하는 것이다.

건물과 그 設備은 自然的인 氣候를 調整하며 주어진 外部環境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活動사이의 Filter 역할을 한다고 보며 건물과 설비는 인간의 生活을 便利하게 하고 때로는 기쁨을 맛보고 環境을 改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현대 건축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長點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백여년 동안 건축가는 그 機能이 매우 細分化되고 많은 進化를 하고 있다고 보겠다. 構造理論의 發達로, 構造技術者는 計量化가 可能한 作業에 있어서, 明快하게도, 建築物은 自己들의 合理的인 計算없이 건축가는 집을 못 짓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同時에 前述한 바 건축설비로서 電氣, 通信, 暖·冷房等의 技術者의 出現으로 이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건축을 기대하기란 힘들게 되었다. 또한 積算에 있어서도 積算家가 出現하게 된 것이다. 즉 一見下에 건축가의 역할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건축가에게 남은 것은 美的感覺이나 計量이 不可能한 Software面의 設計만이 남아 있으며 건축가는 무엇보다도 形,

比例, 色과 質感 等の 그야말로 視覺的인 기쁨과 材料의 使用에만 關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어느 것은 점점 計量이 가능해져 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色은 色相, 明度, 彩度로 分析되고 또한 色에 대한 心理的인 反應조차도 計量이 可能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디자인 分野에서도 過去에는 건축가의 職分으로 自他가 公認하던 都市計劃問題와 造景, 심지어는 실내장식에 이르기까지 전문가가 나타나 건축가를 몰아내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때 건축가가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不安해 하게 된다. 이 時点에서 건축가는 自己 自身の 職分과 그 앞날에 對한 自省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던바, 오늘날 매우 興味롭게도, 그야말로 희미하였던 건축가의 概念을 컴퓨터의 利用과 建築的 思考方式의 協助로 확인하게 되었다. Christopherson이 말 했듯이 이것은 分明히 기술자와는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上記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面에 대한 課題를 주고 Program을 만드는 것은 건축가가 할 일인 것이며 더우기 그 Project에 對한 思考와 創造性을 責任지는 것이 건축가인 것이다. 그리고 人間慾求를 研究하고 제어하는 Software에 대한 價値를 결정짓는 것도 그 職分의 하나라고 보겠다.

건축가는 自己가 가지고 있는 力量以上으로 活動하도록 되어 있으며 建物の 基本構造를 決定하는 視覺的 效果以上の 次元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건축가는 그 建物の 使用者들을 認識器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使用者들은 그들 個個人的인 感覺器官을 통해서 建물을 인식하게 되는데 건축가들의 設計決定은 그들의 인식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게 되는 것이다. 認識의 心理学은, 우리가 좋아하건 안하건, 同意하건 안하건 사람들은 자기들의 個人的인 經驗에 따라서 建물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絶對的인 基準으로 삼는다고 말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建물에 대한 화폐가치뿐만 아니라 機能的인 面, 심지어는 美的인 面에 이르기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評價를 내린다는 것이다. 건축가가 제 아무리 建물을 機能的으로 或은 美学的으로 公平하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개 개인의 趣味와 同一한 것을 建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이 사이에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建築計劃에 込해야 하며 모든 기능과 美的인 面에 있어서 最善을 다하여야 하며 社會는 여기에 대한 責任을 건축가에게 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建물은 人間의 生活을 담는 容器이자 物理的인 氣候의 Filter이고, 人間의 文化的인 氣候를 形成하며 우리 건축가들도 역시 이 안에서 活動하고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文化的인 氣候란 Geoffrey Broadbent가 Desing in Architecture에서 말한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道德的인 壓力에 의해서 決定지워지는 文化的인 要素라는 뜻이다.

세계 제 2차대전 후에 발달된 컴퓨터의 廣範圍한 利用

Ergonomics(人間工学), O. R의 体系分析, 情報理論 등의 導入으로 말미암아 건축가는 그 質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一面 建築論에 대한 混亂도 가져왔다.

이제 本論提起에 있어서 살펴보면 建築의 最高의 目的인 人間의 活動을 便利하고 安全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자연적 기후를 조정하고 人間工學的인 原理에 込각한 機能의 충족과 人間의 美的인 慾求를 調和시켜서 込된 時代의 建築을 創造함으로써 이 社會에 提示하고 社會의 一員으로서의 建築의 責任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建築生産論과 建築設計

오늘날 韓國을 비롯해서 世界的으로 先進國에서는 各 工業分野에서 長足の 發展을 가져와 거둬지는 技術革新의 結果, 모든 生産品에 對한 品質의 向上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극히 일부를 除外한 대부분의 建築界만이 아직도 手工業的인 단계에서 込축공사를 執行하고 있으나 만일 이대로 나간다면 他工業分野로부터의 공격과 苦탄을 받으리라고 생각된다. 다행히도 일부 건축가들은 오늘날 社會科學을 人間慾求의 一般化된 理論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込축적인 문제들은 표준화된 해결(Standardized Solution)을 통해서 人間慾求에 만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Le Corbusier가 제시한 '標準은 一時的인 것이 아니고 分析과 實驗을 통해서 理性에 의해서 조정된 意圖的인 어떤것에 대한 確實性에 込固한 基반위에 세워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組織과 機能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요구를 한다'라는 문제를 검토하고 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計劃·設計 技法에 있어서 工業化 및 標準化의 方向에 대한 積極的인 協助로 Modular Cordination의 本格的인 이해와 追求를 하면서 여기에 建築家가 込가하여서 込築물이 要求하는 機能, 性能을 込하히 表現하는가? 다시 말해서 工業化된 生産技術을 도구로한 機能空間의 造形을 함으로서 建築物의 質을 向上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社會는 建築家로 하여금 고독한 예술가로서의 領域 속에서 헤메이도록은 허락하지를 않을 것이다. 즉 建築 造形에서 美를 求하고 복잡하게 多樣化하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또한 經濟性을 追求하기 위하여서 込축의 企劃, 設計의 단계로부터 生産에 이르는 모든 知識과 技術을 動員하여서 Interdisciplinary(學術的)하게 그리고 有機的으로 建築을 완성토록 하자는 技術論이 「建築生産論」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在來의 設計와 施工이라는 두개의 아주 동떨어진 System의 込레를 벗고 서로 造形과 構造, 機能이 융합한 建築空間을 込조하는 데에는 合理的인 技術的, 經濟的인 方法論이 必要하다고 보겠다. 建築生産論에서는 모든 込축행위에 込하여는 建築的인 福祉라는 思想的인 복지 기술의 込과로서 質이 向上된 建築을 生産하자고 努力할 것이다.

이 마당에 선 建築家は 끊임없는 技術革新과 住宅生産을 위시한 各種 建築의 工業化 工法, 建築施工의 機械化, 要求性能和 品質管理手法, 電算化에 의한 Cost Planning 등에 대한 技術 習得을 게을리할 수 없으며 建築施工에 대한 工業的認識을 깊게하고 建築施工의 近代化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學的인 뒷받침을 하도록 함으로써 建築設計의 質的인 向上과 國家 社會의 要求에 부응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이런 意味에서 建築設計家は 圖面上의 영역을 建築現場과 工業生産界로 확대하여 새로운 建築技術의 開發·育成과 施工 System開發에 関心を 기울여서 자기 자신의 技術向上과 設計와 施工間의 遊離現象을 없애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3] 建築家の 性格

오늘날 대부분의 心理學者들은 建築家の 重要한 특징을 무엇보다도 創造性에 있다고들 보고 있다. 그러나 M. Beuse는 情報理論에서 科學과 技術, 藝術에다 同一하게 創造性을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으나 建築的인 創造性이란 어디까지나 藝術的(artistic)이라는 것을 意味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Donald Mackinnon은 創造性이란 本質的으로 새롭거나 統計的으로 頻頻하지 않는 反應이나 思想을 말한다고 본다. 이것을 建築에 適用하면 建築에 처한 새롭고, 統計上으로 頻頻하지 않는 反應을 일으키는 藝術的(Artistic)인 建築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工藝的인 稀貴性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라든가 오늘날 이루어지는 建物 設計의 論理性을 否定한다는 것이 아니라 建築의 많은 문제들을 초월해서 技術的인 面에서 좀더 효율적이며 저렴하고 교묘한, 全体에 대한 解決策을 만들어 낼 수 있는 創造的인 能力을 가진 사람을 創造的인 建築家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Mackinnon이 말하는 建築家들은 역시 完璧한 芸能人인것 같다.

確實히 그들은 Vitruvius가 말한 建築家보다 훨씬 앞섰다고 볼 수 있으며 心理學者들은 오늘날 建築家들의 卓越한 能力-技術者, 事業家, 言論人, 병리학자, 教育家, 심리학자-들을 結合시키고 調和시켜서 일을 推進해 나가는 能力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Mackinnon은 40名の 創造的이고 世界的인 大建築家들을 (I)群으로 하고 다음을 한때 創造的인 Top Level에서 活動하였으나 創造的인 特質에서 좀떨어지는 43名の 建築家들을 (II)群으로 하고 그리고 지극히 平凡한 設計 事務를 하고 있는 建築家 41名을 (III)群으로 해서 100가지의 設問을 通한 調査를 했었다. 그 結果를 보면 (III)群의 建築家들은 그 內的인 要求에 있어서 비슷했으며 利益에 대한 慾望이라든가 能力에 있어서 대체적인 平準化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I), (II)群에 속하는 建築家들은 그들의 社會參與度, 自我認識, 心理的인 마음가짐과 融通性에 있어

서 確實히 (III)群 建築家들보다 次元이 높았다. 反面에 그들은 그들의 責任感, 社會適應性, 自制와 寬容, 集團意識, 順應性 등에 있어서는 어딘지 모르게 不足한 感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I), (II)群들은 어느정도 反社會的인 面이 약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우기 Frank Lloyd Wright는 이 조사에 不応했다고 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Peta Blake가 「建築의 大家들」이란 책에서 今世紀의 가장 훌륭한 建築家들의 자서전을 보여주었는데 Wright에 대해서는 거만하고 자만에 가득 찬 사람이고 그를 評하는 말에 매우 민감하고 特別히 모욕적인 評에는 깊이 마음상해하고 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Le Corbusier 역시 냉정하고 회의적이며 싸움하기 좋아하고 오만한 사람인데 私的으로 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고 온정을 갖는 사람이며 학구적인 안목과 훌륭한 趣味를 가진 전혀 다른 兩面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있고 Mies van der Rohe를 욕증하고 화강암 같은 용모를 지녔고 우아하게 옷을 입으며 점잖고 놀랄 정도로 自己修養이 되어서 말이 없고 말을 하는 것이 고역이라고 느낄 정도로 수줍어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이 偉人들은 Mackinnon이 말할 (I)群의 세련되고 믿음직스러우며 친절하고 호감이 가며 정력적이라는 것과는 次元이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보겠다.

또한 Macfarlans Smith (1964)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유명한 좋은 建築家는 非社交的이고 유모어도 없고, 冷酷하고, 冷談하며, 疑心이 많고, 과묵하며, 엄세주의적이고, 조용하고, 計算的이며, 自己中心的이고, 폐쇄적인것 같다고 하고 다만 造形面에 있어서 좋은 건축가들은 高度의 空間能力을 가진것 같다고 評하고 있다.

以上에서 볼때에 위대한 建築家들은 모두 個人的으로 많은 短點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古來로 좋은 建築家는 좋은 人格의 所有者이어야 한다고 배웠다. 또한 그 建築家가 建築하는 作品은 그 建築家의 그 동안의 모든 知識과 經驗과 技術의 總和라고 생각된다.

人間의 個性을 觀察하여 보면 大體的으로 大別하여서 內向的인 性格과 外向的인 性格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內向的인 사람은 늘 自己中心的이고 思索하고, 남의 일에 그다지 關心을 두지 않는 反面에 外向的인 사람은 늘 잘 어울리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남의 일에 매우 關心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前者는 概念을 組織化하고 思想의 추상적 Pattern을 좋아하며 哲學的이고 形而上學的인 思索에 빠지기 쉬운데 後者는 多才多能하고 經驗主義的이며 組織化와 哲學的인 思索보다 知識의 大衆化를 좋아한다.

이외에도 사람들은 人間을 創造的인 사람과 非創造的인 사람으로 나누기도 한다. 即 創造的인 사람이란 理知的인 것보다는 感性的인 面에 더욱 치우치게 되고 非創造

的인 사람은 理知的인 面에 더 素質이 있다고 본다. 필자는 建築家의 性格을 말하는 데에 内向性과 外向性의 性格에 더하여 創造的과 非創造性의 四要素를 가지고 人間의 性格에 適用시켜 보는것이 더 說得力이 있다고 生覺된다.

即 上述한 偉大한 建築家들은 内向性에 創造的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며 Peta Blake가 이야기하는 大家들의 性格에 있어서 오만하다든가 冷談하다든가 등의 問題는 人格과 結付시키는 것보다 性格으로 結付시키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以上에서 말한바 오늘날 建築家는 그 職務에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複雜한 職務를 갖고 있으며 發展하는 工業化時代에 適應하는 反面 進行하는 建築大家들에 對한

創造를 俾하고 이 社會環境을 淨化해 나가야 한다는 使命이 있음을 감안하여 어디까지나 美를 創造하는 創造者의 立場에 서서 허다한 知的인 考察과 分析을 익히면서 作品製作에 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서 생각할 問題는 建築生産을 위한 設計圖는 제 아무리 세밀하고 철저히 製作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그 次元的인 表現인 까닭으로 그 構想을 解積하는데에 現場과 設計圖 사이에 差異가 생길 수 있음으로 建築家는 自己作品의 完成을 設計圖의 完成時가 아니라 建築完了時라는 것을 명심하고 現場에 상주함을 原則으로 삼고 作品의 完成과 補完에 힘을 씌우므로서 建築作品과 社會에 責任의 일단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 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